

아무도 몰랐던 **몰래 발명** 이야기

「립톤 홍차의 티백」 글·그림 김민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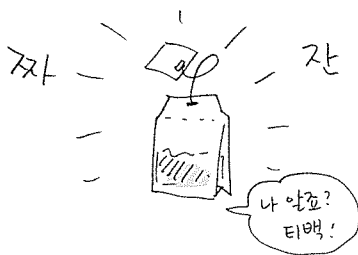
오늘날 사람들이 즐겨마시는 다양한 형태의 차(茶)



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차를 바쁜 현실속에서 제대로 즐기란 무척 번거로운 일인 것이다.



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춰 차문화도 바뀌는법!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~ !!



티백의 등장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차문화를 대중화시킨 일등공신이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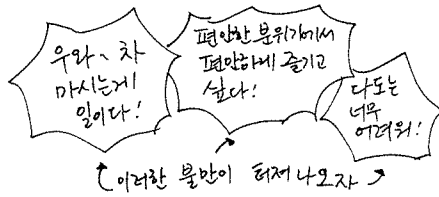
이렇게 '티백'의 등장은 차의 대중화에 진두지휘하며 나서게 되었는데, 과연 오늘날의 저 갈끔하고 예쁜 티백의 등장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!

* 물론 전업으로 차를 사랑하는 분들은 다도를 통해 즐기십니다. 오해마시길 ㄱㄱ!



자. 부론으로 들어가서, 티백의 등장
차문화가 잘 발달된 일본에서 부터인데.
그것도 일본의 '립톤 홍차'에서 시작되었다.

립톤홍차는 약 90년 전부터 일본에
수입되고 있었는데 매출이 늘어난것은
1961년에 티백을 만들고 나서부터였다.



립톤홍차는 향안색 간편하게 마실수 있는
티백을 만들어 내었고, 당시 일본의 청초한
이미지의 최고 인기 모델이자 탭댄스인 '시마야코코'
를 광고 모델로 사용하였다.

결과는 대 성공이었다.
차문화의 산업혁명이 일어난것
같은 일이었고 곧 차문화의
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.



이 티백은 이제 권력기반이 지나 지금은 누가
만들어도 되지만 도입기간이었던 10년간은 립톤홍차의
부와 명성은 대안없었다.

현재 티백은 이런저런 문제
제기 (우리몸에 괴서서 좋지않다는)
도 있지만 하지만 현대인들이
너무나도 애용하는 필수
기호품이 된것은 분명하다.

